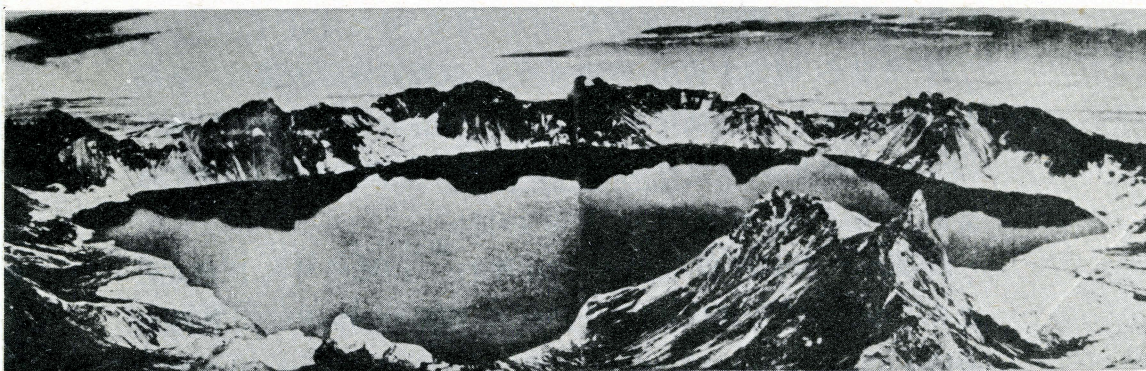


제1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민속놀이
고무산타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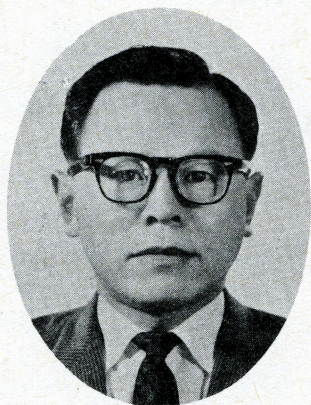


일시 : 1976. 10. 22 — 24

장소 : 경상남도진주시공설운동장

함 경 북 도

人事의 말씀



第17回 全國民族藝術競演大會를 教育都市인 慶尙南道 晋州에서 가지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生覺합니다.

故鄉땅 父母兄弟와 親戚을 共產治下에 두고 失地恢復을 爲한 艱辛 前進努力은 國力培養에 있음은 勿論이지만 그 鄉土의 歷史的인 民族文化를 發掘 開拓하여 이를 發展시킴은 祖國統一의 原動力이 되며 또한 失鄉民의 故鄉을 찾는 길도 될것입니다.

이 뜻깊은 競演大會에 本道에서는 咸鏡道傳頌民謠인 新高山打鈴과 함께 山峽地帶인 古茂山을 聯想하여 口傳한 民謠와 〈춤〉을 咸鏡北道 胎生인 어머니들로 〈팀〉을 構成하여 出演케 된것을 더욱 意義 깊은 일로 生覺합니다.

白頭山과 豆滿江을 國境삼은 地理的인 逆境에서의 咸鏡北道民은 예로부터 汝眞族과 丙子胡亂等 頻繁한 外侵으로 苦難과 逆境속에서도 우리 固有의 文化를 간직하여 오늘에 이르렀읍니다.

아무쪼록 우리道民의 民族藝術에 對한 보다깊은 觀心과 協助있으시기 바라오며 民族文化藝術에 담겨진 우리 祖上들의 〈얼〉과 〈슬기〉를 維新精神으로 繼承 昇華시켜 祖國統一에 邁進할것을 다짐합니다.

1976. 10. 22

古茂山打鈴의 由來

咸鏡北道の 傳頌民謠는 相當히 많으나 男女 젊은이들이 흔히 부르는 古茂山打鈴은 短歌로서 道内에서는 地域에 따라 若干씩 다른 才言이 句節에 反影된다.

옛부터 農土가 좁은곳이니만큼 天地神明께 人間的 幸福을 祝願하며 男女間的 구수한 戀心을 그 内容속에 包含하고 있어서 매우 낙만적인것이 特徵이다.

달 밝은 밤에 흰옷을 입고 춤을 추며 부르는 이 타령의 가락은 판소리의 趣向을 띤 咸鏡北道 唯一의 口傳民謠로서 古茂山과 白頭山の 여러가지 傳說을 回想시켜준다.

古茂山打鈴

1. 고무산이 꼬불꼬불
淸津가는 기차소리
조막산 큰애기
밤붓짐만 싣다
2. 공산야월 부엉새는
님그려 슬피울고
豆滿江에 어린 달빛
슬슬히 비쳐있네
3. 가을바람 소슬하니
낙엽이 우수수 지고
백두산 들쭉발에
고무산 길 멀구나
4. 휘늘어진 낙락장송
휘어넘석 잡고요
애 닳은 이내心情
하소연이나 할까나



출연자명단

차 금 순 64	장 고	전 채 금 57	타령, 춤
김 윤 신 52	북	최 상 금 52	타령, 춤
유 청 숙 52	징	이 명 복 54	타령, 춤
석 훈 성 55	통 소	이 진 옥 53	타령, 춤
김 옥 진 60	타령, 춤	이 은 숙 57	타령, 춤
이 길 복 60	타령, 춤	최 난 철 50	타령, 춤
주 기 남 61	타령, 춤	강 숙 명 62	타령, 춤
천 용 년 55	타령, 춤	이 채 단 60	타령, 춤
김 혜 정 51	타령, 춤	안 정 미 52	타령, 춤
주 금 옥 53	타령, 춤		